

금호타이어 20일 임단협 재개... 대타협 관심

노조 새 집행부 출범 한달째 진전 없어... "해 넘기지 않겠다"

오늘 사전 실무교섭... 수정안 이견 크면 장기 분규 갈수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오는 20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노조 새 집행부가 인선된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일시금 지급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액이 1인당 420만원에 달하는 만큼 보전 방법으로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반면 사

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일시금 상향은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난항이 지속되자 지난 10일 임금 피크제 시행, 일시금 지급 규모,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20일 25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사측이 노조 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사는 25차 본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17일 실무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새 집행부 선거에서 재선출되면서 늦어도 올해를 넘기기 전에 교섭 타결을 이끌어내려는 방침이다. 사

측도 교섭이 잘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새 집행부가 꾸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25차 본교섭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호그룹 본사 상경 투쟁, 교섭 타결 촉구 집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파업 유보 철회도 검토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파업 유보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교섭 타결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가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호그룹의 금지산업 인수 자금 마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측에 긴축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사측이 전향적으로 교섭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공식적으로 경영 악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금호산업 인수 자금 마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 간 상충하는 입장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잔존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 8월부터 39일 동안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1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라 1인당 평균 임금손실액이 420만원을 넘어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3.02 (-30.27)
-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3)
- ▼ 코스닥 659.20 (-11.32)
- ▲ 환율 (USD) 1174.10원 (+10.30)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3일 18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고 수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18개국 초청 수출상담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원장 배정찬)는 최근 18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고 수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2015 광주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장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중국·페루·체코·터키·에콰도르 등 18개 국가의 해외비즈니스센터장들이 참석해 30여 지역 중소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광주TP 해외비즈니스센터장 배정찬은 "이번 수출상담회 및 수출MOU체결이 실제계약 및 수출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략적으로 중국의 저가제품과의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수직적·수평적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노출 순서 조작' 오픈마켓 제재 착수

공정위, 연내 4곳 수위 결정

G마켓,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넷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서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전을 전위원회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맛있는 대봉감 사세요" 16일 강남경 본부장 등 전남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영암 금정면 대봉 농가를 찾아 대봉감 수확을 돕고 있다. <전남농협지역본부 제공>

"감 재배농가 어려움 함께 합니다"

전남농협, 영암서 수확 돕기·감 팔아주기 운동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 임·직원들은 감 풍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감수확 농촌 일손돕기와 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농협전남본부 임·직원 40여명은 16일 가격 폭락으로 인건비마저 건질 수 없어 수확을 포기한 영암 금정면의 대봉 농가를 찾아 대봉감을 수확하며 감농가 지원에 나섰다

또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대봉감 판매

를 위해 전남농협 임직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임직원이 직접 수확한 대봉감과 농가에 보관중인 감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전남 감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촉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남경 본부장은 "대풍으로 행복해야 할 가을에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은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에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바일 뱅킹 6천만명 돌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고객이 누적 기준으로 60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6천8만명으로 전분기(6752만명)보다 4.4% 늘었다. 이는 16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의 스마트폰 뱅킹 등록자 수를 합한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는 중복 계산됐다.

스마트폰 뱅킹 고객 수는 2013년 말 3700만명 수준이었다가 작년 1분기에 4000만명, 올 1분기에 5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10월 광주 자동차 수출 호조, 무역 흑자 견인

전년보다 11.4% 늘어

지난달 광주의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역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10월 중 광주·전남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의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6.9% 감소한 33억6000만달러, 수입은 32.7% 감소한 25억3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무역수지는 8억33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4.4% 줄어든 11억6900만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5억2100만달러로 6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 지역 주요 수출품목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실적이 지난해 동월대비 11.4%나 늘어난 4억740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지역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 월별 자동차 수출 최고치인 6월의 6억1000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출은 자동차 외에 반도체·기계류·가전제품 등이 모두 감소했고, 수입은 기계류와 화장품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고무가 감소했다.

전남은 작년 동월 대비 32.1% 감소한 21억9700만달러, 수입은 38% 감소한 20억1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8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화장품과 석유제품·철강제품이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도 원유, 석유제품, 철강 등 주요수입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중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립,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6~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무출신 여성' 희망 33~67세</p> <p>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